| 지식경제부 | 보도자료 |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 |
|---|---|---|
| 2011년 11월 16일(수) 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| 자료문의 : 이재홍 산업기술정책과장(02-2110-5171), 박현종 사무관(02-2110-5173) | | |

# 지경부, 「민간 R&D 투자 활성화 대책」 발표

□ **지식경제부**(장관 최중경)는 **'11.11.16(수)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**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**"민간 R&D 투자 활성화 대책"을 수립·발표**함

○ 이는 최근의 **국내외 R&D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**하는 한편, 산업계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된 **애로사항을 해소**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

* 전경련, 중견연합회, 중기중앙회 및 벤처협회 등과 간담회 및 설문조사

## < 국내외 R&D 투자 동향 >

□ **(해외동향)** 각국은 신시장 선점 등을 위해 R&D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으나,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**민간투자가 감소세로 반전**

* 국가 R&D 연평균 증가율('00~'09, %) : (中)21.3, (OECD)5.8, (美)5.1, (日)3.9
* 민간 R&D투자 증가율(%, '09) : (獨)△1.4, (日)△10.5, (英)△2.1, (EU)△2.1

○ 아울러, 기술의 **융복합화 및 다양화 등에 대응**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및 국제기술협력 등 **개방형 R&D로 전환 추세**

□ **(국내동향)** '06~'10년동안 민간 R&D 투자는 연평균 11.2% 증가하고 있으나, 국가 R&D 전체에서 차지하는 **비중은 감소 추세**임

**< 민간 R&D 투자 추이(조원) >**

| 구 분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연평균 증가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국가 R&D(A) | 27.3 | 31.3 | 34.5 | 37.9 | 43.9 | 12.5% |
| 민간 R&D(B) | 20.6 | 23.1 | 25.1 | 27.0 | 31.5 | 11.2% |
| 비중(B/A, %) | 75.7 | 73.9 | 73.2 | 71.3 | 71.8 | - |

*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(KISTEP)



○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중소·벤처기업의 **R&D 증가율이 크게 둔화**되고 있어

* R&D 증가율('06→'10, %) : (중소기업) 25.7 → 8.1, (벤처기업) 34.8 → 0.8

-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기업의 R&D 투자 비중은 낮고 정부재원 의존율은 높은 상황임(OECD Scoreboard, '11)

* 전체 민간 R&D 투자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OECD 30개국중 21위
* 중소기업 R&D의 정부재원 비중(%) : (英)7.9, (佛)12.5, (獨)24.4, (美)16.7, (韓)49.8

○ 반면, 대기업은 상위 5대 기업을 중심으로 R&D 투자가 **증가**하고 있으나, **매출액대비 R&D 투자비중은 감소세**

* 대기업 R&D비중(%) : ('06)75.8 → ('07)73.4 → ('08)72.0 → ('09)70.9 → ('10)73.8
* 대기업 매출액대비 R&D 비중(산기협, '11.2) : ('09)2.3 → ('10p)2.2 → ('11e)2.1

○ 아울러, 기업의 R&D 인력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, 석·박사급 **고급 인력비중은 낮아지는 추세**

* 기업 연구인력(만명) : ('06)17.4 → ('07)18.6 → ('08)19.7 → ('09)21.0 → ('10)22.6
* 기업의 고급인력비중(%) : ('06)37.5 → ('07)36.7 → ('08)36.2 → ('09)35.8 → ('10)35.2

- R&D 인력들의 대기업 선호로 **중소·중견기업의 R&D 인력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** 수준

* R&D 인력 증가율('10년) : (299인이하)3.6%, (300~999인)1.7%, (1000인이상)12.9%

## < 애로요인 >

□ 외부 역량을 활용하는 **개방형 R&D 투자에 한계**

○ 국내 기업들은 신기술·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산·학·연 및 글로벌 기관 등과의 **개방형 협력이 저조**

* 기업 R&D의 해외재원 비중(%) : (英)23.5, (佛)10.4, (러)7.9, (中)1.6, (韓)0.3
* 기업의 대학·출연연과 협력 R&D 비중 : ('01) 5.5% → ('10) 3.1%

○ 또한,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영세 등으로 **개방형 협력기반도 부족**

* 연구개발전문기업('09) : (기업수)221개, (평균매출액)6억원/연, (종사자)16.7명

□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**여건 미흡**

○ **연구개발 전문인력 부족 등**으로 신산업 투자에 애로가 있으며, 특히 **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의 유출 문제** 등 발생

* 인력부족 애로기업('11.3) : (大) 62.3%, (中堅) 64.0%, (中小) 67.0%, (벤처) 74.8%
* 박사급 인력 비중 감소(%) : ('07) 25.4 → ('08) 24.5 → ('09) 23.7 → ('10) 23.5
* 기업규모별 R&D 인력의 이직율 : (대기업) 7.2%, (중소기업) 14.7%

○ R&D 세제지원의 부족, 융합기술의 장벽 등으로 인해 **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다소 낮은** 실정

* 농업용 LED조명, 기능성 섬유소재 적용 스노우체인 등에 대한 기술기준 미비 및 기업연구소 인력기준에 인문분야 전공자 제외 등

□ 개발된 신기술의 개발·사업화 **연계가 부족**

○ 각 부처 R&D 사업들의 상호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해 **개발기술의 이전·사업화 등** 가시적 성과 **창출이 다소 낮고,**

* 공공기관(대학,출연연) 기술이전율 : (韓) 23.1%, (美) 26.4%, (EU) 33.5%

○ 특히, 개발된 신기술·제품의 **시험·인증·실증 등이 어려워 상용화 등 해외 시장 선점이 지연**

* 애로 경험 : (신기술의 시험·분석·인증) 72.3%
* 법정 인증 : ('07)96개(의무 37, 임의 59) → ('11)112개(의무 43, 임의 69)

< 대책의 주요내용 >

산업계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민간의 **기술혁신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**하기 위한 **개방·융합형 R&D 투자 기반 구축**

①민간의 외부 **역량 활용에 한계 → 개방형 R&D 투자 확대**

②新산업 투자를 위한 **기반 부족 → R&D 투자 환경 개선**

③R&D 성과의 **사업화로 연결 애로 → R&D 단계 間 연계 강화**



## 1 민간의 개방형 R&D 투자 확대 유도

○ 외부 전문가 및 국민 등 **집단지성에 기반한 연구개발 강화**

- 논문, 특허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을 **탐색·제공**하는 **시스템을 구축**하고, **전문가 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**
- 국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**크라우드 소싱**(Crowd Sourcing) **R&D 투자** 촉진
-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**집단지성을 활용한 창조적 기술혁신 방안**」 수립('12.上)

○ **연구개발 전문기업**(컨소시엄) **육성**을 위한 R&D 아웃소싱 촉진

- 중소·중견기업들의 **공동 애로·기반기술**들을 **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공동으로 개발·활용**
-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「**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**」 **제정 추진**(교과부)

* 「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」 제정(안) 국무회의 통과후 국회 제출('11.10)

## 2 신산업분야 민간의 R&D 투자 여건 개선

○ 중소·중견기업들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산·학·연 등이 집적하는 **산학융합지구 조성 확대**

* 산업단지의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200여개 기업연구소들이 입주

- 기 지정된 산학융합지구(시화·반월, 구미·왜관, 군산·새만금)을 성공모델로 정착하고,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
- 기업주치의센터를 확대하고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등을 집적하는 한편, 산·학·연 전문가들이 상호 연계하는 **지식셀 그룹*** **확산**

* 산업·기술 정보 교류,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애로 해결 등 추진

○ 중소·중견기업의 **전문인력 수급** 및 **세제지원** 지속 추진

※ '11.8월 수립된「산업인력 육성·관리시스템 혁신방안」차질없이 추진

- 중소·중견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 등에 **맞춤형 교육과정** 설치 및 **여성인력 활용** 확대 등 추진

- 출연연의 **중소기업 협력센터를 확대**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재교육 등을 지원

* ETRI, 생산기술연구원, 기계연구원 등 5개 구축 → 다른 출연연으로 확대

- 민간의 R&D 투자 활성화를 위한 **세제 지원 지속 추진**

*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공제의 일몰기한 연장('11년 → '14년)
* 기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연구소첨단기술지주회사 포함

○ 기술장벽에 대한 **DB 구축** 및 **합리적 개선방안 마련**

- 연구용역결과,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**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**하는 방향으로「**기술융합 장벽 해소방안**」수립('12.上)

### 3 국가 R&D 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

○ 교과부 등의 우수 기초원천 기술개발 성과를 지경부 R&D 사업 등으로 연계하는 **중개연구 촉진**

○ 우수 R&D 성과의 **이전 및 사업화 촉진**을 위한 기반 조성

- 신산업 분야 **사업화연계 펀드 신규 조성**('11년, 500억원) 및 **엔젤매칭펀드 신설**('11년, 100억원), **보증연계투자 도입** 검토*

* 기술신용보증과 연계한 기보의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추진

- **창의자본**(인털렉츄얼 디스커버리, '10.9월 설립)을 조성*하여 유망 신기술에 대한 **인큐베이션 본격 추진**

* ID 기업의 민간기업 투자 유치('12년초까지 650억원 유치 계획)

- **가치창출·시장 지향적 R&BD 시스템 구축**을 위한「**제4차 기술이전·사업화 촉진계획**」수립('11.12)



○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**시험·인증 서비스 개선 및 실증 인프라 확충**

- **시험·인증 취득 부담 완화**를 위해 국내 **시험성적서들의 상호 인정*** 및 **해외 인증기관들과의 MOU 체결**** **등 확대** 추진

* 부처별 단계적 시행 : ① 기표원('11) ⇒ ② 지경부('12) ⇒ ③ 전부처('13)
** 국가별 교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間 협약 체결(브라질·인도, '12.下)

- **신기술의 조기 상용화**를 위한 Track Record 등에 필요한 **실증 인프라 확충*** 및 **미래 지능형 신인프라 구축**** 추진

* 광역경제권역별로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 에너지기술 테스트베드 구축
** 미래지능형 복합에너지 네트워크, SOC 긴급 대응형 클라우드기반 이동형 방재 인프라 등('12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예정)

□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**정부의 자금*·인력지원**** **확대**와 연계하여 **민간의 개방·융합형 R&D 투자를 촉진**하는 「민간 R&D 투자 활성화 대책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,

* 정부 R&D 예산 확대 : ('11) 14.9조원 → ('12e) 16.0조원 (7.3% 증가)
** 산업인력육성·관리시스템 혁신방안('11.8) : '12년까지 3만명 고용창출

○ **대내외 R&D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**하는 한편, 정부·민간 R&D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**기술혁신을 유도**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